# 韓國大學博物館의 現況과 課題*

鄭 澄 元**

목 차

Ⅰ. 머리말
Ⅱ. 대학박물관의 역할
Ⅲ.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
Ⅳ.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직
Ⅴ. 대학박물관의 과제
Ⅵ. 맺음말

## Ⅰ. 머 리 말

내가 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을 맡고 있을 때 협회 산하에 학예연구원회가 공식화되어, 별도 예산이 배정되고, 연구비도 일부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나는 학예연구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 당시부터 이미 대학의 박물관장직이 임기제인데다, 일반 보직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의 일관성 있는 방향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 판단이 정말 옳았는지 지금은 현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지금까지 대학박물관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또 오늘 이야기의 초점도 자연히 잘 되고 있는 박물관보다는 아직 부족한 대학박물관 쪽에 맞추어져 있음을 밝혀 둔다. 원래 이 강연은 학예연구원회 발표회에 맞게 학예연구원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였으나 중간에 발표회의 성격이 바뀌고, 제목도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변경되어 할 수 없이 여기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 체제도 흐트러 질 수 밖에 없었고 내용도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

---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4회 춘계 학술발표회 기조 강연문(2001. 4. 20)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Ⅱ. 대학박물관의 역할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은 그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유적발굴조사를 활발하게 하는 박물관과 소장유물의 전시·보관에 치중하는 박물관으로 2大別 할 수 있다. 전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가 많고, 후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입지적 조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어느 박물관 할 것 없이 이미 양자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거나 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 엄격히 보면 양자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박물관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유형에 속하는 박물관이건 간에 박물관 본래의 활동은 아주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이 갖고 있는 열악한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은 그 특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몇 가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젊은 대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실물을 통해 교육하는 본격적인 전통문화 교육기관이다.

둘째, 박물관 수가 많고,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실제 국공립 박물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대학박물관이 그 기능을 대행함으로써 공백을 메꾸어주어 공적인 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전국 각지의 유적을 활발히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자료를 축적·보관할 뿐 아니라 연구보고서, 전시도록 등의 연구서적을 많이 간행하여 실질적인 지역문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또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하여 특색있는 박물관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전문연구자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실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박물관, 연구소 등 관련기관에 연구자를 공급하는 전문인력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각 지역 문화유적의 보존·보호활동을 최일선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이나 역할들은 다른 관련기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대학박물관만의 독특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이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 Ⅲ.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

이미 몇몇 사립대의 경우 시설을 제대로 갖춘 훌륭한 박물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일부 국립대까지도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어 대학박물관이 외형적으로는 꽤 팽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요즘이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위기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다.

### 1) 대학박물관의 증가세 둔화

근래에 와서 대학의 수는 급격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박물관은 거의 증가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박물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데도 기인하지만, 대학박물관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 2) 대학 당국의 박물관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열악 및 부속기관의 지위 후퇴

대학 당국은 박물관에 대한 투자보다는 몇번의 유적발굴을 통해, 또는 적당히 기증 받아 쉽게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대학안에서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박물관의 대학 부속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갈수록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관심과 지원 밖에 놓인 박물관은 쉽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박물관 관계자들의 의욕과 열의상실에 따른 타성적 운영 등이 더해져서 오히려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3) 대체로 시설이 열악하다

대학박물관의 경우 대학간 시설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일부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 있는가 하면 대개는 독립건물도 아니고 다른 건물에 더부살이하면서 아주 좁은 면적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받고 있는 박물관이 많다.

따라서 전시 및 수장시설이 협소하고 빈약하여 유물의 전시 및 보관관리 상태도 전반적으로 허술한 편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현실이며, 대학박물관이 관람객(주로 대학구성원)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수장하고 있는 좋은 자료를 이용하여 특색 있는 박물관을 꾸밀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박물관을 꾸미지 못하고 있고, 꾸민다 하더라도 소장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 전시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및 교육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5) 박물관장직의 비전문화와 전문연구자의 부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박물관장직이 일반 보직화되어 비전문가들이 임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또 관장의 임기제가 일반화되어 2년 단위로 교체 또는 연임되는 추세여서 박물관의 운영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학예연구직이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승진 기회가 없거나 아주 적고, 대우도 열악하며 신분의 안정성도 잘 보장되지 않아 학예직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직의 불안정성은 의욕을 잃게 하고 학예직으로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박물관 각 분야의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며 새로운 영역의 개척은 엄두도 못내게 한다.

결국 이런 상황은 대학박물관으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고 타성에 젖은 무기력한 학예연구직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 6) 대학구성원들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

대학박물관의 일차적인 교육대상은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일부 사회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박물관의 경우도 그 대상은 학생이 아닌 사회인 쪽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아 학내구성원들로부터 박물관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늘날 대학박물관의 현실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박물관 관계자들의 의욕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대학박물관은 '대학'이라는 연구시설 내에 있는 만큼 연구기관적인 성격이 강조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Ⅳ.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직

박물관에서의 박물관장 직이란 박물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선장 격이라면 학예

직은 항해사 및 기관사에 해당한다. 선장과 항해사·기관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배가 고장나지 않고, 목적지로 순항할 있는 것처럼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박물관장과 학예직은 박물관의 양대 축으로서 굳게 뿌리내려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박물관장의 잦은 교체와 비전공자의 임명은 박물관의 운영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열악한 대학박물관의 경우 대개 학예직이 행정 및 관리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해 학예직 업무라도 여러 사람이 수행해야 할 전문업무를 소수의 사람들이 도맡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학예직으로 하여금 초능력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교적 많은 인원의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는 규모가 큰 공공박물관에 비해, 특히 대학박물관의 경우 최소규모의 인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더더욱 초인적인 의지로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학예직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박물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또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 자기 역할 수행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박물관 학예직이 수행해야 할 일은 대충 보아도 전시, 교육, 유물관리 등 박물관 고유업무 외에도 유적조사발굴, 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활동, 개인연구, 답사, 유적보존·보호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 등 다양하다.

위에서 제시한 이 일들을 모두 제대로 수행하는 대학박물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중 일부만 수행하는 박물관이 대부분이고, 설사 형식적으로는 모두를 수행한다해도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모든 것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예직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라야 하고, 의욕과 올바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어 안이한 사고에 빠져 있으면 그 만큼 박물관 운영·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학교 내외에서 그 만큼 밖에 평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박물관은 학교박물관으로서의 독특한 운영방향이 필요하고 또 특색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유물전시기관만이 아니고,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일부로서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박물관장의 보직을 주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요, 학예직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과연 우리들이 교육기관의 일부로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활동해 왔

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람객이 오든 말든 관심 없고, 고민하지 않고, 무사태평인 박물관장이나 학예연구원은 없어야 할 것이며, 박물관 구성원들이 실의에 빠져 안주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결코 좀더 나은 박물관으로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할는지도 모른다.

보다 나은 박물관을 지향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직의 자기인식과 성찰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자기신분에 대한 불안, 차별대우, 비전부재 등은 소속감은 물론 책임의식까지도 소홀하게 되기 때문이다.

## V. 대학박물관의 과제

박물관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이 처해 있는 입장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대학박물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차적으로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오늘 발표하실 4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평소 느끼고 있던 원론적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 1) 대학박물관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즉 대학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理論의 定立 또는 대학박물관의 운영철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학에 왜 박물관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대학에 박물관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대학박물관은 일반박물관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대학박물관의 특성, 운영, 활동목표가 무엇인지 등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대체로 대학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운영철학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은 박물관장이나 학예연구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뚜렷해질 때 對內外的인 立地를 확보할 수 있고 자기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특색 있는 전문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개 일반 종합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대학박물관이 학교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색 있는 박물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의 경우 학교에 따라 시설이나 설비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어디가나 있는 비슷한 박물관에서 벗어나 학교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규모는 작아도 특색있는 전문박물관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3) 교내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중요기관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물관이 대학 안에서 도서관이나 전자계산소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위상과 지원규모가 떨어져, 활동의 폭도 위축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이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박물관장과 학예연구직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구성원들에게 박물관이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관심한 학내구성원들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개발함과 동시에, 박물관 자체의 자기 PR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내구성원에 대한 박물관 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이 확보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을 경험해 봄으로써 박물관의 효용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학내구성원이 박물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서 치밀하게 계획된 전시가 필요하다. 대개 지금까지의 전시는 유물나열 중심의 무성의한 전시로 일관하고 있어 소수의 전문가나 전공학생을 위한 전시처럼 되어 있다. 전시내용이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다수의 학교구성원을 위한 쉬운 전시가 필요하고, 전시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전시에 대한 지식, 기술,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박물관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4)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대학박물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박물관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고, 또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를 집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문화 연구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대학박물관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운영 방침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수행해 가야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내 및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가치와 위상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유적 보존·보호활동에 주도적으로 앞장섬으로서 학내구성원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박물관의 여건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의 책임자인 관장과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및 국립대학 박물관장 협의회 등은 대학박물관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전문인력의 증원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학예연구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극심한 인력부족, 신분보장, 대우, 승진기회 등의 열악성 등으로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인력난에 따른 임시방편의 인력조달은 박물관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갖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성된 총체적인 박물관원으로서의 주인의식 결여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관장은 학교 안에서, 협회와 협의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대학마다 박물관을 만들고 특히 교육대학교의 경우 박물관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면 한다.**

대학은 많아졌으나 대학박물관의 신설은 부진한 편이다. 협회차원에서 대학박물관의 중요성·필요성을 강조하여 박물관 설립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대학설치 기준령 상의 박물관 조항 부활 등 대학박물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5년에 한 차례씩 행해지는 대학평가시 박물관을 그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교원대학교와 일부 교육대학교에 박물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대학의 경우 박물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 2세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박물관에 대한 교육과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교육대학에는 박물관이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할 것이다.

**7) 한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대학박물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처럼 대학박물관이 많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볼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

라 처럼 박물관이 잘 발전·확대되어 있지 않은 현실하에서 대학박물관이 차지하는 역할분담의 몫은 매우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의식이 아울러 필요하며 향후의 대학박물관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심각한 반성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 Ⅵ. 맺 음 말

지금까지 한국대학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늘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간단히 피력해 보았다. 지금은 박물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내용이 너무 원론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다 고생하고 있는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들에 대해 격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방적 희생만 강조하기도 하였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제점만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보다 나은 대학박물관의 미래를 위해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래까지 우리나라 유적발굴조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대학박물관이 발굴전문법인의 등장으로 요즘은 그 주축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는 대학박물관 본연의 역할과 자세를 뒤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로, 자기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발굴에 치중해 있던 역량을 대학박물관 본연의 활동 쪽으로 돌리고, 발굴 자체도 용역발굴에서 벗어나 점차 교육적인 의미가 더 강조된 학술연구목적의 계획발굴 위주로 가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들의 각오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느라고 본연의 연구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고 자기 위치를 확보한다면 학예연구직 여러분들은 더 돋보이게 될 것이다.

유물만 덩그렇게 놓여 있고 관람객이 없는 텅빈 전시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박물관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이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합시다.